



0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 제1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내실화
- 제2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 제3절 북한이탈주민 희망프로젝트 추진

제6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인원은 1998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총 2만 3,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들어왔다. 2010년에는 총 2,379명이 입국하여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2011년에는 총 2,737명이 입국하여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의 입국비율이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현재 약 69%에 달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40대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남	829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6	579	819	7,171
여	118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61	1,800	1,918	15,929
합계	947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9	2,737	23,100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비하여 강원도 화천에 제2하나원을 건립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사회적응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초기 적응을 돕고,

거주지 중심의 정착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2001년 이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으며 2011년 말 기준 58개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10년 3월 26일 개정된 「정착지원법」의 시행으로 전국 30곳에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사와 정착도우미 등 3대 민간 정착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 27일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민간지원 활동을 통합·조정하는 새로운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대상별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둔 「북한이탈주민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탈북청소년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장학 및 교육지원을 확충하고, 이들을 통일 미래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제1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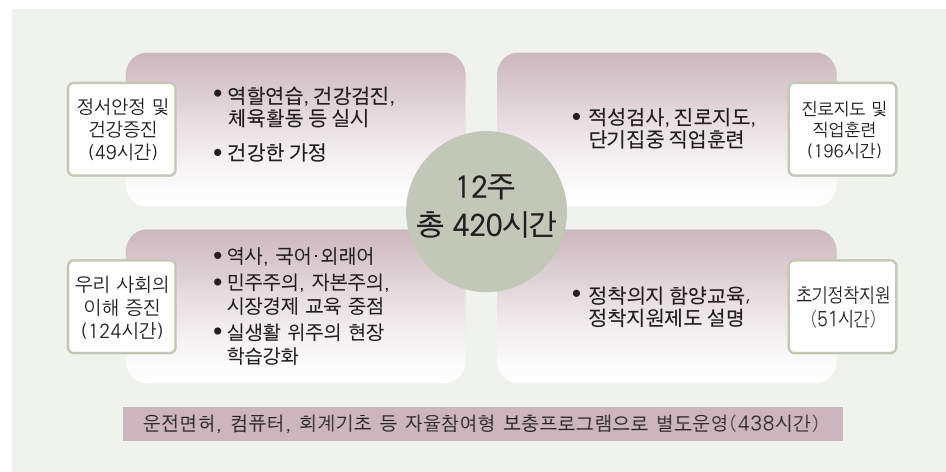
1. 교육프로그램 개편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사회적응교육은 정서 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와 함께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부여를 교육목표로 ①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② 우리 사회 이해 증진 ③ 진로지도·직업훈련 ④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 과정 등을 그 내

용으로 한다. 또한 정규프로그램 외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 ‘자율참여형 보충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선택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정규프로그램



2011년 4월에는 내·외부 강사 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 자체평가, 전문가·수료 교육생·북한이탈주민 고용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현행 교육기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현재 까지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11차에 걸쳐 개편해 오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자유·민주적 법질서 인식 함양 ②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실용적 내용 보강 ③ 자율·자립·자활에 필요한 정착의지의 함양에 역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국가 정체성 및 역사관 확립을 위한 역사교육을 확대·개편하였다.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남북한 언어 차이 및 외래어 교육’, ‘실생활 경제교육 및 법률상담’, ‘남한 직장문화 교육’ 등을 확대하

였다. 또한 정착의지를 함양하기 위해서 자립자활 노력이 중요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실생활 소재의 ‘정착사례’ 과목을 확대하였다.

2.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직업교육의 취업연계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기집중 직업훈련을 개선하였다. 2011년 3월 하나원 본원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하나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인정받아 한경대학교에 요양보호사과정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초전자조립’, ‘품질관리기초’, ‘봉제’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본원에서는 2011년 1월 ‘용접’ 과정을 신설하여, 현재 ‘중장비(지게차)’, ‘자동차정비’ 등 3가지 직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훈련기관도 기존의 두원공대에서 한경대, 대우직업능력개발원, 청강문화산업대 등으로 확대하였다.

단기집중 직업훈련 실적

(단위 : 명)

구 분	수료 인원		구 분	수료 인원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기초전자조립	231	517	요양보호사	—	263
품질관리기초	223	330	중장비	125	182
봉제	254	211	자동차정비	133	186
피부미용	221	30	용접	—	178

또한 하나원은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하나원 수료 전 매월 1회씩 ‘중소기업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채용면접과 중소기업 현장탐방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남한의 직장문화와 중소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과의 만남의 장'에는 2011년 12월 까지 총 3,52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였으며 기업체의 채용 면접에 합격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970명이었고,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225명이다.



중소기업과의 만남의 장

진로상담 분야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1년에는 그동안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을 취업기술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편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이력서 작성, 채용 면접요령 연습, 취업의 걸림돌 극복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진로희망찾기」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진로상담 실적

(단위 : 명)

구 분		진로희망찾기	개별 이력서 클리닉
상담실적	2010년 1월 ~ 6월	1,578	—
	2010년 7월 ~ 12월	1,348	—
	2011년 1월 ~ 12월	1,804	301

*개별이력서 클리닉은 2011년 5월부터 운영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보조하여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촉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지원금 제도는 2000년 2월 최초 시행되었으며, 2007년 이후 매년 지원액이 대폭 증가하여 2011년의 총지원액은 2007년 대비 487%가 증가하였다.

고용지원금 지원현황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업체수(개)	323	378	564	888	1,151	1,419	1,717
인원(명)	446	497	728	1,111	1,489	1,963	2,565
지급액 (만 원)	142,628	140,200	224,033	349,457	640,600	973,231	1,314,607

3. 탈북 아동·청소년 교육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중 4세 이상 ~ 1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나원 내 하나돌학교에서 연령 및 학력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돌학교는 유치반 1개 반, 초등반 2개 반(저학년·고학년반), 청소년반의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돌학교에서는 2011년 12월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파견교사 6명과 무지개청소년센터 파견교사 2명 그리고 자체 강사 3명 등 총 11명의 교사가 청소년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10년 3월 26일 개정, 9월 27일 시행된 「정착지원법」으로 탈북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유관부처 간 협의를 통해 2011년 3월부터는 하나원 수료 전 경기도교육청의 학력심의에 따라 재북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원은 예비학교운영규정 제정, 자체교재 발간 등 일련의 준비과정 끝에 2011년 10월 20일 하나돌학교를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로 전환하고 공식 개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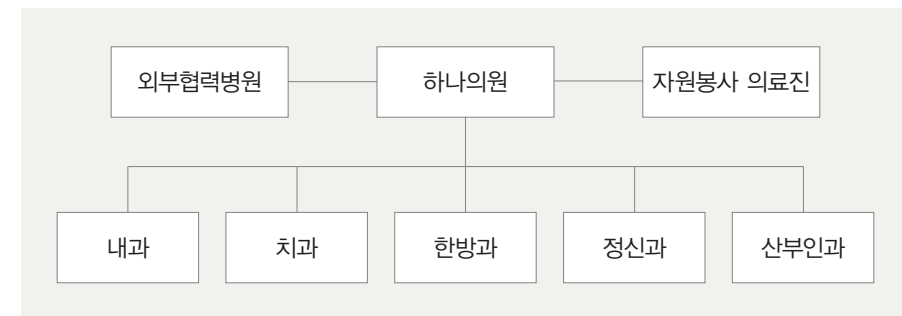
4. 교육생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가. 하나의원 운영

하나원에서는 교육생의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해 하나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1999년 하나원 개원 당시에는 간호 인력이 1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교육생 증가에 따라 의료 인력을 꾸준히 확보해 교육생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현재 하나의원은 내과·치과·한방과·산부인과·정신과 등

5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 7명, 간호사 6명, 약사 1명 등 총 14명의 의료진이 연간 약 4만건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하나의원 진료 체계



2011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중점사업의 하나로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B형간염 보균자 비율이 내국인보다 4~5배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에 북한이탈주민 전원에 대해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은 지역 의료지원기관·단체 및 병원과의 의료협약을 통해 의료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에는 '현대의료재단 인애가 한방병원(9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11월 29일)'과 의료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에도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4월 28일)', '부산대학교병원(5월 24일)', '전북대학교병원(7월 13일)', '인천적십자병원(11월 10일)' 등과 의료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지원을 위한 거점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서울의료원과 의료지원협약 체결

나. 심리상담 및 정서안정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에서부터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위기를 경험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교육생들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 해소 및 정서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심리상담사가 본원과 분원에 배치되어 있다.

심리적 불안정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견된 교육생에 대해서는 개별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 수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하나센터와 지역사회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

교육생들의 정서안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1년 4월에는 기존의 '역할연습' 프로그램을 '집단상담'으로 개편하여, '대인관계', '의사소통 기술훈련', '긍정적 자아상', '미래상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나원은 2005년부터 매년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2008년에는 북한이탈주

민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2009년에는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필수 수련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5. 제2하나원 건립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의 증가에 따른 교육수용능력 증대 및 맞춤형 교육, 재교육 활용 목적으로 제2하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2하나원을 친환경 고효율 건물로 건축하기 위해 2010년 4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건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6월에는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녹색 건물 설계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실시하였다. 연구용역 및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10월에 건축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12월에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다.

2011년 4월에는 실시설계를 최종 확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한편, 건축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7월 7일에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제2하나원 사업부지에서 '꿈과 자유를 향하여'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제2하나원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제2하나원은 2012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제2하나원의 건축규모는 대지면적 7만 7,151㎡(23,380평), 건축 연면적 1만 5,220㎡(4,610평)로서 지하 1층·지상 4층의 생활관 및 교육관, 안내동, 경비동, 직원 관사 등의 건물 6개동으로 구성된다. 이는 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374억 원이 소요된다.

제2하나원은 남성 교육생의 사회 적응교육 외에도, 고학력·전문직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교육 및 다양한 교육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재교육 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제2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하나원을 수료한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지원금, 지역적응교육,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주거지에 전입해서는 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역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을 설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초기 정착지원

가.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은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부모 및 자녀의 인적사항, 배우자와의 혼인 관련사항 등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원 수료 전에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해 주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각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해 신고지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1월부터는 하나원에서 임시 주민등록지 20여 개를 지정해 교육기간 중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나. 정착지원금 지원제도

정착지원금 지원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한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5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을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2011년 12월 기준 정착금은 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노력 및 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가산금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기본금은 1인 세대의 경우 주거지원금을 포함하여 1,900만 원을 지원된다. 2010년에는 2,435명에 대해 기본금 156억 원과 주거지원금 241억 원이 지급되었고, 2011년에는 기본금 140억 원과 주거지원금 270억 원이 지급되었다.

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지원현황

구분	'05	'06	'07	'08	'09	'10	'11
인원(명)	1,352	1,976	2,450	3,005	2,321	2,435	2,417
기본금 (만 원)	2,448,100	2,193,800	2,476,100	3,054,800	2,027,800	1,560,500	1,403,577
주거지원금 (만 원)	800,900	1,187,700	1,603,800	2,026,700	1,952,600	2,406,900	2,699,767

정착가산금은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가정 아동보호를 위해 지급되며, 이 중 동일인에게 하나의 정착가산금만 지급되고 있다.

정착가산금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수준
연령가산금	60세 이상	720만 원
장애가산금	장애등급별	1,540만 원(1급), 1,080만 원(2~3급), 360만 원(4~5급)
장기치료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80만 원×개월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가산금	한부모 아동	360만 원

다. 취업지원제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 장려금을 매년(1·2·3년차) 100만 원씩 증액하여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2,4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장려금 지급기준

(단위 : 만 원)

구 분		기 준		금액
정 착 장 려 금	직업훈련 장려금	500시간 이하		미지급
		500시간		120
		500시간~1,220시간		120~240 (120시간당 20)
	*직업훈련 추가장려금	1년 과정, 우선선정직종		200
	자격취득 장려금	1회 한(限)		200
	취업 장려금	1년차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신청시 250 지급	550
		2년차		600
		3년차		650
총 액				2,440

* 취업장려금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2005년 5월 사회진출자)부터 대상

2005년부터 도입된 장려금은 지급인원과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취업장려금 수급자는 2008년 대비 2011년에는 약 12배로 증가하였다.

장려금 지원현황

(단위 : 만 원)

연도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우선선정직종	취업장려금	총 액
2011	118,100(726명)	163,800(819명)	70,400(352명)	1,183,700(2,406명)	1,536,000(4,303명)
2010	150,000(985명)	171,200(856명)	65,000(325명)	668,600(1,325명)	1,054,800(3,491명)
2009	88,400(681명)	104,000(520명)	21,800(109명)	296,900(646명)	511,100(1,956명)
2008	62,940(506명)	69,040(345명)	18,800(94명)	89,100(196명)	239,880(1,141명)

라. 주택 및 교육지원제도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주거지원금을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를 결정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주택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배정한다.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837세대와 1,813세대의 주택을 알선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학에 진학하면 국·공립 대학의 경우 학비를 전액 면제하며, 사립대학은 국가가 학비의 50%를 보조하고 있다.

학비지원 기간은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8학기 동안이었으나 2010년 9월 27일부터는 6년 범위 내 8학기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에는 사립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952명에 대해 약 23억 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1,334명에 대해 약 32억 원을 지원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설립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종합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0년 9월 2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였다. 이어 2010년 11월 2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출범식을 개최하였고, 2011년 2월 10일에 재단 사무실을 마포구 창전동에서 현재의 여의도로 이전하였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무실 개소식 (2011년 2월 10일)

2011년 12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사무총장, 1실, 4부, 1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총 58명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하나원 수료 이후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정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초기 정착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상담 지원, 의료 및 긴급 생계 지원, 주택미배정자 및 무연고청소년 생활 지원, 여성 쉼터 개소 및 방과후공부방 운영·지원 등이다.

또한 문화교양강좌 및 생활적응강좌 등 대상별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대안학교 지원 및 탈북청소년 장학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취업 및 고용 촉진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소자본 창업, 영농 정착, 사회적 기업 설립 등을 지원하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환경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한 남북한 주민 상호 이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생활 실태 조사 및 연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서도 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3. 거주지 보호 및 지원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지역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보호담당관과 지역사회 복지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 필요한 생활 실태자료를 파악하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2001년 서울시 노원구 지역협의회(100인 이상 거주)가 최초로 구성된 이후, 2011년 12월 기준 58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이 중 2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정착지원과 관련된 예산 중복과 과다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 협력네트워크이다. 또한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지방의 정착지원역량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3주간의 초기집중교육과 1년간의 밀착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09년에 서울, 경기 2개 지역, 대전, 대구, 광주 등 총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2010년부터 전국 30곳으로 확대하였다.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설치 지역

(단위: 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경북	경남	광주
개수	4	6	2	2	2	2	2	2
지역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충북	전북	전남	제주
개수	1	1	1	1	1	1	1	1

하나센터 지역적응 교육 내용

지역적응교육		수료 후 첫 1주간	하나센터 운영	
목	하나원 수료 (신병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입주 신고 담당형사 상견례 	지역사회 이해 및 생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교육 구청, 은행, 마트 등 주요기관 및 시설 방문
금	지역사회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센터 소개 교통/시장 안내 	진로탐색과 직업준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교육 파악 및 상담 취업기본교육 직업훈련기관 및 사업장방문
월	고용지원센터 출장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 정보 제공 구직/구인 정보 제공 	진학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 학교 소개 학부모 교육
화/수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 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통장 실명 변경 	건강증진 및 개인역량 강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건강 관리 정신건강 예방 교육 지역의료기관 이용방법 안내 및 방문 여가활동 안내
			인생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계획서 작성 및 공유

2010년도에는 초기 집중교육대상자 2,073명 중 1,675명이 교육에 참가(80.8%)하여 1,570명이 이수(93.7%)했으며, 2011년도에는 초기 집중교육 대상자 2,309명 중 1,795명이 참가(79.3%)하여 1,664명이 이수(92.7%)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후의 사후 지원 건수는 2010년 총 5만 4,852건이며, 2011년에는 총 8만 6,930건이었다.

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1년 12월 말 기준 전국 16개 시·도에서 10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 한해 동안 3만 4,833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2011년에는 7만 5,918건의 상담을 실시하였다.

2011년 분야별 상담 실적

(단위: 건)

상담분야	취업	주택	건강	교육	지원 제도 안내	심리 /정서	의료 /생계 급여	가정 문제	법률 관계	기타	합계
실적	9,798	5,005	9,554	9,243	12,203	11,031	2,630	3,990	3,338	9,126	75,918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알선하고, 지원재단 및 지역유관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병원 이용 방법 안내 및 의료비 지원 활동, 북한이탈주민의 진학 유도 및 능력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워크숍

라. 정착도우미

정착도우미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전입한 이후 일상생활과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전입한 이후 1년 동안 지역사회를 안내하고 임대주택 입주, 주민등록 신고, 가정방문(월2회) 등을 통해 '친근한 이웃'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12월 기준 대한적십자사, 자유총연맹, 사회복지관 등 14개 기관에서 1,549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착도우미 교육

마. 보호담당관

보호담당관은 취업보호담당관 외에 거주지보호담당관과 신변보호담당관이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북한이탈주

민의 거주지 전입과정에서부터 주민등록,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편입과 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2011년 12월 기준 전국 223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의 54개소 고용센터에 전문 직업상담사로 지정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바. 기타 민간단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에서도 지역사회복지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심리상담, 청소년교육, 주민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실시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2011년도에는 민간단체 29개 사업, 북한이탈주민단체 14개 사업, 지방자치단체 8개 사업 등 총 51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민간공모사업

제3절 북한이탈주민 희망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정착지원정책을 일방적·시혜적 차원에서 자립·자활 차원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등 새로운 정착지원제도를 확충하였다.

특히 2011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0%에 달하는 탈북여성과 무연고 청소년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확충하고 있으며, 탈북청소년을 미래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1. 「24시간 종합상담센터」 개소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2011년 5월 30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내 종합상담 및 24시간 콜센터(1577-6635)를 개소하였다. 총 10명의 전문상담사가 교대로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까지 총 8,448건의 상담을 하였다.

앞으로 권역별로 전문도우미 시스템(경찰, 법률, 응급의료, 노동, 교육 등)을 확충하여 지역별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2.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확대 및 유지 등 취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포스코 등의 기업과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0년 9월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10년까지 설립된 사회적기업 21곳에 대해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신규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재단에서는 공모를 거쳐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적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업들을 모집하고, 인프라 구축비용, 경영·법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2011년에는 추가적으로 사회적기업 12곳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2010년 7월 현대차미소금융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소자본 창업지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1년에 2회 약 20~

30명을 선발하여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1인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의 창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2010년 하반기에 27명을 선발한 후에 약 10억 원을 대출해주었으며, 2011년에는 총 40명에 약 15억 원의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었다.



통일부-현대차미소금융재단 간 업무협약 체결식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영농교육을 이수한 후 영농사업 계획서 등을 점검하여 영농컨설팅 및 영농자금을 지원하며 2011년에 18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공모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을 7명 이상 채용한 채용우수업체 12곳을 선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무교육, 직장 내 단합대회 등을 지원하였다. 채용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은 고용환경을 개선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내 적응을 돕고, 장기 근속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

여성·대학생 등 대상별로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다. 탈북여성들의 주요 희망직종인 사무관리직 육성을 위해 2011년 5월부

터는 전산회계 등 사무관리 관련 자격을 보유한 대상자를 모집하여 실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후 사전에 확보된 사무관리직 취업처로 채용을 알선하였다.

또한 탈북대학생을 우리 사회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자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2011년도에는 6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탈북대학생들은 2주간의 사전교육이 끝난 후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소속 기업, 우수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였다.



탈북대학생 인턴십 발대식

3. 탈북여성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전체 입국인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부터 출산지원금(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유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아의 경우에는 1가정당 1인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는 등 최대 90일까지 산후조리를 지원한다. 유아의 경우에는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아동학습지원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아이돌봄교육 및 취업·생활정보 강좌를 개설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돌봄교육



아동학습지원

특히, 폭력에 노출된 탈북여성들을 위한 쉼터와 재활을 위해 하나쉼터 3곳을 개설·운영하고, 탈북여성들의 육아 지원을 위해 방과후공부방 17곳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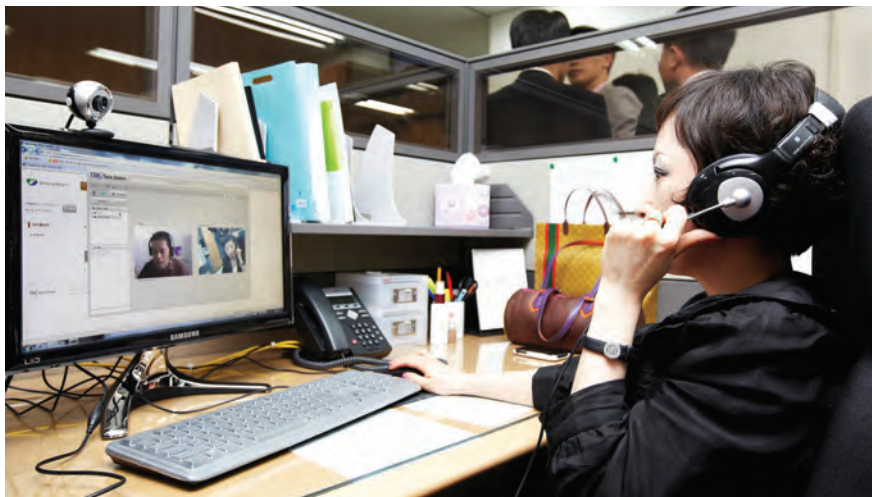
무연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무연고청소년 그룹홈 13곳 및 주택 미배정자를 위한 공동생활시설 12곳을 개설하였다.

4.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10월 20일 하나원 내 '예비학교'를 설립하였다. 한편 2011년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을 통해 탈북 중·고생 205명, 대학(원)생 182명 등 총 38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탈북청소년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여 8개 시설에 약 7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1년 5월 30일부터는 탈북 청소년에게 1대1 영어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화상 교육을 도입했으며, 진로와 진학을 지도하기 위해 대학입시 박람회 등을 개최하였다.



영어 화상 학습

특히, 탈북청소년들은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함으로써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세대로서 정부는 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탈북대학생 5명을 선발하여 「WEST」 프로그램(Work English Study Travel, 정부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에 시범적으로 참여시키고, 대학생 미래리더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해외연수 등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협력하여 총 200여 명에게 우리나라 문화·자연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예술의 전당과 협조하여 클래식 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5월 ~ 12월, 매회 30명)하였다.

5.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문제는 정착지원제도가 성공적으로 효과를 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10년 12월에는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통일인재 육성기금 마련을 위한 「Dreams Come True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Dreams Come True 콘서트

2011년에는 사회통합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과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사례(2010년 12월 30일 ~ 2011년 2월 10일, 7회)를

발굴하여 공중파를 통해 방송하였고,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등과 협조하여 '새터민 학생들의 남도여행' 다큐멘터리를 방송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KBS, 케이블 TV, 지하철 역사 등에 홍보하였다. 2011년 11월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2011년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해 남북 주민 2,200여 명이 함께하는 인식 개선 행사도 개최하였다.



「2011년 어울림 한마당」 행사

한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격월간 소식지 「동포사랑」(매월 1만 6,000부), 월간지 「재단소식」, 인터넷 뉴스레터 및 영문 뉴스레터 「NKRF(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등을 발간·배포하여 관련 소식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다.